

2010년 북한자유주간을 위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로부터의 메시지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북한자유주간을 주최하고 준비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북한자유주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북한자유주간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인들이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의 특사로서, 저는 북한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에 헌신한 한국과 미국의 시민 사회들이 함께 이룩한 협력과 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또는 북한에서의 정보유입을 촉진시키고 있고, 인권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 발전에 초석을 닦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미국의 국가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입니다.”

북한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와 같은 확고한 생각과 일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